

일 주 문



해충 스님,美 칼슨市 명예시민
조계종 포교원장 해충 스님은 구랍 30일 미국 LA 등지에서 해외 포교를 한 공적으로 캘리포니아 칼슨시 명예시민을 위촉받았다.



현성 스님,독거노인 새터민 위로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월 18일 서대문구청에서 관내 독거노인과 새터민 45명에게 쌀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대중·노무현 기념사업회 총회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1월 14일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이사진 확대를 논의했다.



2011 인드라마 정기총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2월 19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마교육도장에서 2011년 정기총회 및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제11회 원담 서예 대상전
예산 수덕사 주지 용산 스님은 2월 15일까지 수덕사 선 미술관이 주최하는 제11회 원담 서예 대상전 출품작을 모집한다.



능인선원 청소년, 흥련암 참배
서울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1월 22-23일 양양 낙산사 흥련암에서 능인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진행한다.

인사 정병조 금강대 제4대 총장



금강대학교 제4대 총장에 정병조 금강대 이사가 선임됐다. 금강대학교 학교법인(이사장 도용·전태종 총장)은 1월 1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58차 이사회를 열고 정병조 이사를 새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4년간이다.

입적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



대구 과거사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이 1월 7일 거제 신광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4년, 세납 77세. 1957년 우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철웅 스님은 1958년 대구 동화사에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1969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1969년부터 20여년간 성전암에서 외부출입을 하지 않고 수행에 매진했다.

복지에는 불교 발전 이끌 힘이 있다

화평 스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유공 표창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서울 소재 노인복지관 최초로 2006년 서울시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도서관이나 교육기관 중심이었던 평생교육이 노인복지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복지관 측은 평생교육기관 지정 후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관장인 화평 스님(사진)은 구랍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0 평생교육 유공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불교계 인사 중 유일한 선정이었다.

"배움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욕은 상당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광진노인복지관은 검정고시반,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취업 관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드게임 놀이지도사' 양성과정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레크리에이션과 보드게임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 교육'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놀이 연구소와 연계해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으며 급여도 지급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고 있다.

구랍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랑의 외플 하우스'는 광진노인복지관의 자랑이다. 2008년 서울시 고령자 육성사업으로 시작한 '사랑의 외플 하우스'는 2010년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거쳐 노동부 인증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질 좋은 커피와 각종 차,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르신들과 복지관의 노력으로 수익도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사랑의 외플 하우스'는 2008년에 선정된 서울시 고령자 육성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은 성공 사례로 꼽힌다.

대형 택배회사들과 연계해 진행하는 어르신



택배 배달 사업은 지난해 1억 7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카네이션 학교'는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비문해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검정고시반도 운영하며 매년 합격생

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70% 이상 출석한 경우 인근 장안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학구열을 자극하고 있다.

"타인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가했다. 출가 후 은사 스님께서 보현행이 기본이라며 수행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화평 스님은 불교 사회복지와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제도권 속의 전문화된 복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님은 또 국제개발기구(NGO)인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을 겸하면서 해외의 구호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평 스님은 국내 불교 사회복지에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웃 종교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고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복지에는 불교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당장의 가시적 성과나 비용만을 생각하며 조급해하면 안 된다. 느리지만 잔잔하게 멀리 퍼질 수 있는 것이 복지의 힘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대불련 DB구축, 네트워크 강화할 터

이 인 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회장



"10년 앞을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지원팀'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구랍 25-26일 서울유스호스텔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8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년 제49차 신임회장에 이인근 前 대불련 전북지부장(전북대 05학번·사진)을 선출했다.

이인근 회장은 "매년 시행되는 대불련의 단기적인 사업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장기적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스태이티스 구축을 통한 대불련 네트워크 마련 △봉사 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의 장 확대를 대불련 리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불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현재 대불련의 중앙-지방-지회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체계적인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불련 회원

들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축해 해마다 데이터를 재수집하느라 버려지는 시간을 절약하겠다"며 "회원들의 기본인적사항 뿐 아니라 현재·과거의 활동 내역, 최근연락날짜, 지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회원들에게 맞는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불련에서는 연회단, 문화부, 종교평화모니터요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대학 재학 중에 이뤄지는 것이라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한 대학생들의 참여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 회장은 "올해부터 봉사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연등축제와 연회단 활동, 앞으로 시행될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활동 등에 봉사활동이 인증 되도록 하겠다"며 "일반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불교를 만나고 대불련 활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대학생활 동안에만 대불련 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 후배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불련에 관심을 갖는 범우 한명이라도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고민을 해준다면 2020년에는 더욱 많은 대불련 후배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내은 기자

"인천·경기 불교 활성화 하겠다"

전문기 인천경기포교사단 신임단장



"인천·경기지역의 사찰 포교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포교 불모지나 낙인 찍혔던 인천 지역의 포교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사단이 나섰다.

그동안 포교사단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통합해 포교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활동지역이 광범위해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1월 9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인천·경기지역단을 출범하고 초대 단

장으로 전문기(62, 법명 덕암·사진) 포교사를 선출했다.

전문기 포교사는 "어느 지역보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 경기지역에서 사찰과 연계해 불교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4년에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 포교사들이 흥겹고 재밌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교원장 해충 스님은 "인천·경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자비율이 적어 인천경기지역단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다가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포교활동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내은 기자

전국산악인 연합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양춘동)가 구랍 20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승인됐다.

단체는 1997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흥인곡 스님을 증명법사로, 서둔각 대한불교진흥원장, 송석구 동국대총

장 등 교계 원로를 고문으로, 불교방송 등 교계 언론사 사장단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불교문화유산 및 수행도량 보호사업, 청정국도 가꾸기, 1산악회 1산(山) 지키기 사업, 자비 효도 및 인제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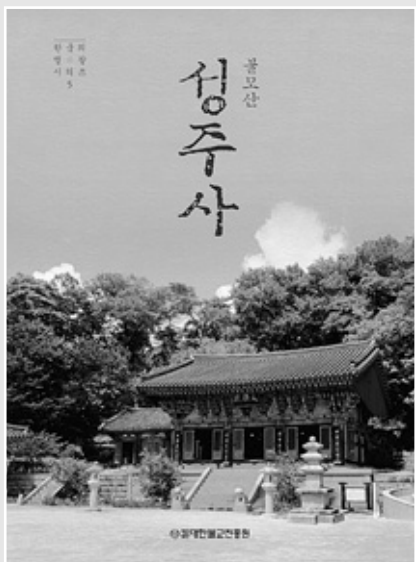
이상연 기자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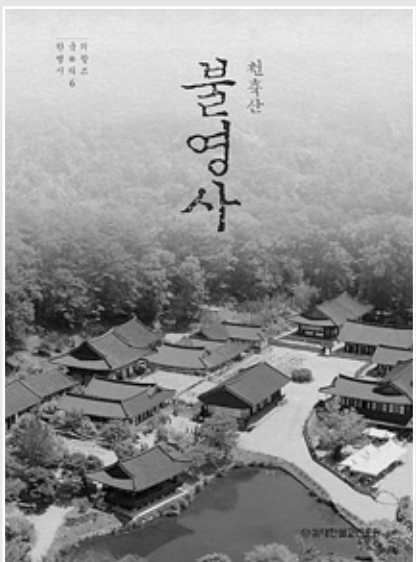
천 년의 세월 따라 이어진 천 년의 법맥! 부처님의 어머니 품속처럼 정겨운 고품절 은은한 법향으로 사시사철 향기로운 사찰



신국판 | 288쪽 | 값 20,000원



신국판 | 212쪽 | 값 20,000원



신국판 | 212쪽 | 값 20,000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교문화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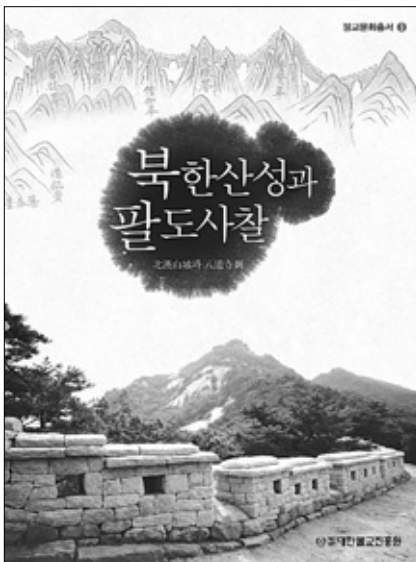
부처님이 앉은 높은 자리 깨달음의 길로 이르는 길 이 땅을 지켜낸 호국덕전



허상호 지음 | 176쪽 | 울컬러 | 값 20,000원



권중서 지음 | 216쪽 | 울컬러 | 값 20,000원



이병두 지음 | 208쪽 | 값 20,000원

※2009년 발행 : 술한 외침에 맞선 강화를 대표하는 호국사찰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보고 오대산 중심사찰로 이름난 선지식들이 머물던 곳 『전등사』 신국판 | 172쪽 | 울컬러 | 값 18,000원 『화엄사』 신국판 | 228쪽 | 울컬러 | 값 20,000원 『월정사』 신국판 | 232쪽 | 울컬러 | 값 20,000원

※2010년 발행 : 부처님 향한 아름다운 정엄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달집』 신대섭·신대현 지음 | 232쪽 | 울컬러 | 값 20,000원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전보삼 지음 | 230쪽 | 울컬러 | 값 20,000원